

호남권 3개 시·도 관광 활성화 머리 맞댄다

내일 DJ센터서 컨퍼런스

전라도브랜드화 강연·토론

여행 킬러콘텐츠 발굴 워크숍도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가 호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전남도, 전북도와 함께 호남권 관광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오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2019 호남권관광활성화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 주제는 '찍고, 먹고, 머물고

싶은 전라도 브랜드화 하기'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진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최영기 전주대학교수, 박종찬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강경록 한국중앙일간지여행기자협회장, 배인호 트래블루션 대표,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 학계, 관광분야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다.

컨퍼런스 기조연설은 KBS 여행프로그램 '걸어서 세계속으로', '일요다큐 산'을 연출한 현상윤 프로듀서가 맡는다. 현 PD는 이 자리에서 여행프로그램 PD가 생각하는 여행트렌드 변화에 대해 들려준다.

소니 광고모델인 사진작가 김주원의 '사진작가가 바라본 전라도 킬러콘텐츠'와 문화체육관광부 '내 나라여행 함께 가꾸기' 자문위원인 여행작가 이종원의 '전라도의 숨겨진 여행지와 스토리텔링' 등 다채로운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남도 지역관광 매력도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토론도 진행된다.

컨퍼런스와 연계해 10월과 11월에 걸쳐 진행되는 호남권 관광워크숍에서는 사진작가 김주원과 지역청년들이 함께 광주, 전남·북 주요 관광지를 돌며 사진실사에 나서 남도 여행의 새로운 킬러콘텐츠를

발굴한다. 촬영된 사진들은 향후 호남권 지역관광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명순 시 관광진흥과장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환경속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 관광산업분야 관계자들은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남도관광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관광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남도관광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호남권관광활성화컨퍼런스는광주시에 호남권관광활성화컨퍼런스는광주시에 호남권 관광 3개 시도가 매년 순번제 순서에 따라 개최하며 올해는 광주시가 주최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농촌 일손돕기 광주도시철도공사(시장 윤진보) 임직원 30여명은 농번기를 맞아 25일 광주시 광산구 연산마을에서 농산물 수확 및 마을 정화 작업 등을 펼쳤다.

광산구 전국 첫 '행복 정책관' 신설

시민 행복 증진 규정 본격화

1국 3과 14팀으로 조직 개편

'행복'이 민선 7기에 들어서 '시민 행복'을 최우선 규정 가치로 삼고 '행복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1국 3과 14팀으로 조직을 개편, 본격적인 시민 행복 증진에 나선다.

지난 25일 '광주시광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이 광산구의회 의결로 확정됐다.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산구는, 올해까지 조직개편을 마치고, 내년 부터 새로운 행정체계로 구정을 펼친다. 앞으로 있게 될 광산구 조직개편의 핵심은, 과감한 체질개편과 혁신행정으로 시민 행복정책을 추진하고, 미래 30년 광산 변혁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민 행복 전담기구인 '행복정책관',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산업과', 민관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시민협치과'를 각각 설치한다. 나아가 청소, 교통, 공원 등 시민생활 밀접 분야를 총괄하는 '시민생활국'을 신설한다. 아울러 광산구는 경제·안전 분야 기능 강화, 복지체계 효율적 개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확대 등도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조직개편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행복정책 전담부서를 '과' 단위로 설치했다는 사실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시민 행복을 규정 목표로 설정해 민선 7기를 출범했고, 올해를 '행복정책 추진 원년'으로 선포했다.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온전하게 시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정을 일신한다는 취지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3월 '광산구청장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광산구는 '행복정책 TF팀'을 구성하고, '행복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어 8월 부탄 행복정책 벤치마킹, 9월 '주민행복증진조례' 제정, 10월 부서별 행복시책 발굴 및 4개년 행복정책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했다.

나이가 12월 12일 '행복정책 비전선포식' '부탄 전 차관 카르마 치담 초청 특별강연'으로 시민과 행복정책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지훈 국민총행복전략포럼 상임이사는 "행복정책을 핵심과제로 삼는 타 자치단체의 매뉴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서구 발산마을 '앗싸 공중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광주시 서구 발산마을에 있는 '앗싸 화장실' (사진)이 행정안전부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제21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앗싸 공중화장실은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방치된 공-폐가를 매입해 한옥구조로 개조한 화장실이다. 특색있는 인테리어와 마을 사진, 소품 등을 활용해 꾸며졌다. 광주 달동네 중 한 곳인 발산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진 후 하루에 200-



300명이 찾아드는 도시재생사업 선진 사례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5일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제22회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에 참석한 광주시 북구·대구시 달서구의 장애인, 자원봉사자, 주민들이 빙자루로 럭비공을 빨리 이동시키는 게임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대구 달서구,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

500여명 참석 화합 다져

광주시 북구와 대구시 달서구가 영·호남 장애인들의 화합의 장인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 (사진)를 개최했다.

북구는 "(사)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와 (사)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주관으로 지난 25일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북구·달서구 장애인, 자원봉사자, 주

민 등 500여명이 참여해 '제22회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2화제를 맞은 장애인 친선교류대회는 광주 북구와 대구 달서구가 1997년부터 양 지역에서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동시에 상호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 북구와 대구 달서구는 1989년부터 자

매결연을 맺고 장애인친선교류대회·청소년 홈스테이·체육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펼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신발걸림, 박 터트리기 등 체육대회와 축하공연, 구별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북구의 대표 관광자인 무등산생태탐방원과 광주호호수생태원을 탐방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심정지 환자 살린 40명에 '하트 세이버' 수여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심폐소생술 등 전문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119구급대원과 시민 총 40명에게 25일 '하트세이버(HeartSaver)'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로 인해 죽을 위험에 놓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

에게 수여하는 명예 표장으로, 분기마다 수여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 중에는 지난 8월9일과 28일 한달 새 두 번이나 심장정지로 자택에서 쓰러진 부친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최우진(16·중학생) 군도 포함됐다.

최근 7년간 총 6명의 심장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남부소방서 오영식 대원과 북부

소방서 강민 대원은 '하트세이버 금배지'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하트세이버를 6차례 받는 수상자에게는 '하트세이버 금배지'가 수여된다.

황기석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심장정지 환자를 살리려면 신속한 가슴 압박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 강사 등을 활용해 많은 시민들이 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적극적으로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28일부터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6종 23대 무상임대

광주시는 28일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무상 임대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고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해 장애인의 학습과 교육,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지적노약자, 시각·청각 장애인이다.

신청은 11월 8일 오후 5시까지 광주시 보조기기센터로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기기센터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23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장애인은 최대 1년 간 특수마우스, 점자학습기, 독서보조기, 점자학습기, 점자정보단말기, 광학문자판독기, 의사소통보조기, 무선신호기 등 16종의 보조기기를 무상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www.gjat.or.kr) 또는 보조기기센터(062-613-9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대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교육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